

사상 최저 0%대 저물가 정부 “디플레이션은 아냐”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0.04%’...채소류 -17.8%·석유류 -6.6%

“전체적으로 디플레이션(경기 침체+물가하락)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사상 처음으로 사실상 마이너스(-) 0%를 기록한 데 대해 정부는 ‘디플레이션’ 상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저물가 현상이 성장률 저하로 수요압력이 낮아지면서 발생하는 소비침체에 따른 물가하락이 아닌 국제유가 하락과 채소값 폭락에서 비롯된 일시적인 공급요인에 의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두원 통계청 물가동향과장은 3일 “최근 소매판매지수 하락 등 소비 부진의 영향도 있지만 현재는 일시적 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른 경제적 요건 상 경제성장률도 고

려해야하는데 2.4~2.5%가 우리 목표치다. 전체적으로 디플레이션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19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8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0% 상승했다. 소숫점 둘째자리까지 비교하면 올해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4.81로 전년동월 104.85보다 0.04포인트(p) 하락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사실상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1965년 통계집계 이후 사상 처음이다.

최근 소비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물가마저 하락하자 수요저하에 따른 물가하락이 원인으로 지적됐다.

하지만 이 과장은 이에 대해 “일

단 이번달 물가가 최근 낮아진 상황에서 농축산물과 석유류 기저효과로 물가가 낮아졌다. 가격 하락 품목 수도 29개 품목이 증가했지만 하락 품목들이 농축수산물에서 대부분 발생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전반적인 물가 하락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며 “하락 품목 중에서도 석유류 외 공업제품이나 공공서비스 개인서비스는 비중이 증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8월 채소류는 전년동월보다 17.8% 하락했으며, 석유류도 같은기간 6.6% 하락했다.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도 전년동월대비 0.9% 상승을 기록하며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롯데백화점 “아쿠아디 파르마 향수를 만나보세요” 3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소공동 본점 ‘아쿠아 디 파르마’ 팝업스토어에서 고객 이 산상품 ‘시그니처 라인’을 살펴보고 있다. ‘아쿠아 디 파르마’는 1916년부터 지금까지 핸드메이드 방식으로 니치 향수를 제작하는 이탈리아 프리미엄 향수 브랜드로, 이번 행사에서는 기존 라인에 오스만투스, 유자, 바닐라를 각각 혼합해 만든 시그니처 라인 3종(20ml 12만 2000원, 100ml 27만원)을 판매한다.

직장인 절반 “회사 싫다”

낮은 연봉·부실한 복지·꼰대 경영진
“위라벨·체계 잘 잡힌 회사 일하고파”

낮은 연봉·부실한 복지·소통하지 않는 경영진 등이 직장인의 회사 근무 만족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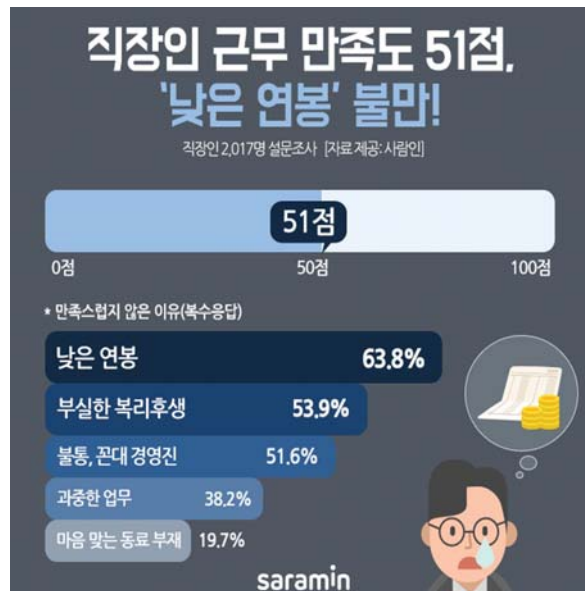
3일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직장인 2017명을 대상으로 ‘재직 중인 회사 근무 만족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과반인 50.2%가 “현재 직장에 불만족한다”고 답했다.

또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51점으로 낙제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직장인들이 만족스럽지 않은 이유(복수응답)로는 △낮은 연봉(63.8%) △부실한 복리후생(53.9%) △불통·꼰대 경영진(51.6%) △과중하 업무(38.2%) △마음 맞는 동료 부재(19.7%) △출퇴근 어려움(15.3%) △상사의 괴롭힘(13.1%) 등을 꼽았다.

또 입사하기 싫은 회사의 유형(복수응답)으로는 △꼰대가 많고 수직적인 조직문화를 가진 회사(68.5%)가 1위로 꼽혔다.

다음으로 △체계가 얹어 주먹구구식으로 일하는 회사(67.6%) △야근과 주말 출근 등이 당연한 회사



(64.9%) △월급이 적은 회사(59.8%) △복지제도가 적고 사용하기 어려운 회사(49.4%) 순이었다.

한편, 직장인들이 꼽은 ‘일하고 싶은 직장’(복수응답)은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는 회사(67.7%) △위라벨이 잘 지켜지는 회사(51.8%) △업무체계가 잘 잡혀 있는 회사(47.7%) △기업 및 개인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회사(45.2%) △연봉을 많이 주는 회사(45.1%) △정년 보장 등 오래 일할 수 있는 회사(36%) 순이었다.

뉴스1

“온누리상품권, 이제 모바일로 사서 쓰세요”

중기부, 모바일상품권 첫 도입...개인 구매시 최대 10% 할인
월 구매한도 50만원, 비정상구매 감시...발행규모 점진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을 모바일로 첫 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발행 규모는 3000억원 규모이며 향후 모바일상품권 발행액수를 늘려갈 방침이다.

중기부는 그동안 지류·전자(카드) 형태로만 판매·유통되던 온누리상품권을 4일부터 모바일로도 발행한다. △농협(올원뱅크) △경남은행(두우뱅크) △광주은행(광주은행 개인뱅크) △대구은행(DGB 아이M뱅크) △부산은행(썸뱅크) △전북은행(전북은행 뉴스마트뱅크) 등 6개 결제앱을 통해 구매 및 결제가 가능하다.

중기부가 오는 9일 도입 예정인 쿠팡(체크페이) 앱을 활용하면 농협 등 6개 은행 뿐 아니라 소비자가 사용하는 모든 은행계좌를 통해서도 모바일 상품권 구매가 가능하다. 쿠팡은 9월9일 안드로이드에서, iOS는 9월20일부터 각각 도입 예정이다.

앱에서 상품권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이 포인트로 충전되며, 결제시 결제금액만큼 포인트가 차감된다. 결제는 소비자가 가맹점에 비치된 QR코드를 결제앱으로 촬영하면 된다. 모바일상품권 가맹점은 ‘전통시장통통’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상품권은 개인이 구매할 경우 2000억원 발행시까지 10% 할인이 적용되며, 매월 50만원까지 할인을 받아 구매할 수 있다. 2000억원 초과시부터 연말까지는 6%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지류상품권(5% 할인)을 웃도는 할인율로 모바일상품권 조기 확산·정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모바일상품권은 전통시장·상점이 가맹점이면 별도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소비자는 이용금액의 4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품권 구매, 환전을 위해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돼 소

비자와 상인 모두에게 유리한 구조다.

정부 입장에서 지류·전자 상품권에 비해 유통관리 수수료가 낮아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온누리상품권 유통관리 수수료는 지류가 3.8%, 전자(카드)가 3% 초반대이지만 모바일은 그 절반 수준인 1.5%에 불과하다.

중기부는 특징이 모바일상품권을 오남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기명식 구매로 사용자 정보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사용자·가맹점 유통량의 이상 징후를 자동추적하는 시스템을 통해 부정유통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김형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소비자들은 이제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상품권을 쉽게 구매할 수 있다”며 “소비자들께서 전통시장 및 상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편리한 모바일상품권을 많이 이용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10월부터 ‘개인 선물하기’ 기능을 추가하는 등 모바일상품권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에 투자하십시오

-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 육성
-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 단지 조성
-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적극 지원

GWANGJU